

CH 6 : 중생- 새로운 심장

A)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져다 주는 2 가지 변화

1. 개인적 -영적- 인격적 (Individual- spiritual- personal)
2. 공동체적- 사회적- 정치적 (Communal- Social- Political)

**성서 /성서적 비전/ 구원에 대한 성서적 이해- 모두 개인적이며 정치적이다.

B) 중생을 통해 이런 변화의 은유를 강조하는 이유

1. 신약성서에서 중심적인 주제이므로
2. 보수적/ 근본주의적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
교회안에서 나누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할 가능성이 높아짐

C) 중생이란? (풍부하고 포괄적인 개념/신약성서와 기독교인의 생활의 중심)

1. 요한복음 3: 1-10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일화
 - 영적으로 새로운 출생
 - 내면적으로 새로운 출생
 - 개인적인 변화
2. "죽음과 부활"
 - 과거의 존재방식에 대해 죽는 것 => 새로운 존재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 과거의 정체성에 대해 죽는 것 =>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 신성함, 성령, 하느님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
3. **공관복음**에 나타난 "죽음과 부활"
 - 예수가 가르친 길 "the Way"
 -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
 - 십자가를 지는 것=> 죽음의 상징 => 죽음: 새로운 삶의 길
 - 예루살렘 - 죽음과 부활의 장소. 끝과 시작. 무덤=> 자궁의 상징
4.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죽음과 부활"
 -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 -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에 자리한 개인적 변화의 은유
 - 갈라디아서 2:20 - 바울의 개인적/내면적 십자가 처형의 경험
 - 세례의식: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사는 것을 상징함 => 과거의 존재방식은 죽었으며 새로운 존재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내면적 변화의 상징
 - "그리스도 안에서" -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 로마와 유대인의 분열이 극복된 것
5. **요한복음**에 나타난 "죽음과 부활"
 - 12:24 (밀알의 비유)

- 죽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6. 십자가와 중생

- 십자가: 예수의 처형의 상징 => 변화/중생의 길(the Way)의 상징
- 자기에 대한 죽음으로 해석할 경우=> 자기욕망의 억압: 억압적, 권위적, 부정적 의미
- 해방과 재연결의 수단의 상징=> 과거의 존재방식, 과거의 정체성에 대한 죽음을 상징
- 우리는 자기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문제: 현재 우리는 자기자신이 아니다.

7. 중생의 필요성

- 자아의식 (self concern): 자아가 탄생, 성장하면서 하느님과 분리를 일으킴="타락"
- 자아의식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달하며 문화의 산물이다 : 3A's
- 거짓자아 (false self) : 문화에 의해 만들어지고 강요되어지는 자아
- 중생: 유배의 상태에서부터 돌아오는 길, 참된 자기를 회복하는 길, 내면이 외부로 나아가는 삶, 개인적이며 집단적이 이기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거짓된 자아로부터 죽는 것, 그리스도안에서 중심이 잡힌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8. 중생의 과정

- 극적일 수도 있다. ex) 다마스쿠스로 가던 바울
- 점진적인 과정: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할 과정, 기독교인의 삶이 성숙하게 되면서 하느님을 깊이 신뢰함으로써 동반되는 자기망각의 체험
- 보편적이며 배타적이지 않다 ;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과정

9. 중생: 의도성

- 영성의 목적: 새로운 자기와 새로운 삶이 태어나고 양육되도록 돕는 것
- 영성의 정의: 하느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더욱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의도하는 것
- 교회라는 공동생활을 하는 중심목적 중의 하나

10. 새로운 삶

- 새로움: 중생의 특징 - 중생은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머무르게 두지 않는다.
- 열광적(rhapsodic)이며 현실적 (realistic)
- by 사도바울: **자유, 기쁨, 평화, 사랑**
- 성령의 열매이자 선물 -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존재방식의 열매
- 고린도전서 13 장 - 사랑은 성령의 열매들과 연결되어 있다
- by 예수 : 연민 (Compassion) 누가 6:36 - 생명을 낳고 양육하며 포용하는 마음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함께 아파하는 연민 속에서 성장하는 것 => 진정으로

중생한 체험과 겉으로만 중생한 체험을 구분하는 가장 일차적 기준

(마태 7: 16 - "you will know them by their fruits")

D) 생각해 볼 것들

- 나는 진정한 중생을 체험했는가?
- 진정한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 현재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실제로 영성을 도모할 수 있을까?